



지난해 3월 14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쓰나타 K리그 2010 광주개막전. 2만여 축구팬들이 몰려 홈팀을 응원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반갑다 프로축구” K리그 오늘 킥오프



16개 구단 총 240경기 치러 6강 진출팀 가려

광주FC 오후 3시 광주서 대구FC와 데뷔전

16개 구단 제제로 재편한 2011년 프로축구 K리그가 5·6일 주말 개막전을 시작으로 9개월여의 그라운드 전쟁에 돌입한다.

출범 29년째를 맞은 프로축구는 광주 FC가 ‘제16구단’으로 창단하면서 제도와 기회를 맞은 데다가 어느 해보다 많은 대어급 선수들의 ‘도미노식 이동’으로 올해는 관중의 보는 재미가 더할 것으로 보인다.

9개월 대장정 돌입

16개 구단이 30라운드에 걸쳐 텁팅 30경기씩 총 240경기를 치러 6강 플레이오프 진출팀을 가린다. 12월4일 챔피언결정전 2차전까지 아홉 달여의 레이스가 이어진다.

특히 6일 오후 2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예정된 울산 개막전은 지난해 정규리그 우승팀 FC서울과 FA컵 챔피언인 수원 삼성 간의 뒷배치로 치러진다.

지난해 정규리그 1~3위(서울, 제주, 전북)와 FA컵 우승팀(수원) 등 네 팀이 참가하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예선도 1일 시작됐고 컵대회는 주중에 진행된다.

축구 전문가들은 올해 정규리그 2연패에 도전하는 서울과 3년 만의 K리그 정상 탈환

에 나선 수원이 선두를 다틀 것으로 판도를 분석하고 있다. 또 지난해 6강 플레이오프에 나갔던 제주, 전북, 울산, 경남과 비시즌에 전력을 보강한 포항, 전남, 부산, 인천 등도 중위권을 형성할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해 AFC 챔피언스리그를 제패하고도 주축 선수들이 대거 빠져나간 성남과 상주로 연고지를 옮긴 상무, 시민구단인 대전·강원·대구, 신생팀인 광주FC는 6강권 전력으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16개 구단 중 7개 구단이 새 사령탑을 맞은 가운데 디펜딩챔피언 서울과 FA컵 챔피언 수원이 정규리그 우승컵을 다틀 가능성이 크다.

운성효 감독이 이끄는 수원은 거울급 이적생들을 앞세워 2008년 우승 이후 3년 만에 K리그 정상 탈환을 노린다.

수원은 지난해 차범근 전 감독이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낙마한 뒤 운성효 감독이 7위로 시즌을 마쳤고 FA컵을 제패하며 AFC 챔피언스리그 출전 티켓을 따내 체면 치레를 했다.

지난 시즌 후 대표팀의 주전 수문장인 정성룡을 거액의 몸값에 영입하며 ‘데알 삼성’ 재건을 위한 첫 단추를 끈 수원은 ‘조광래의 황태자’ 이용래와 대표팀에서 뛰었던 오세석, 오장은, 최성국 등을 데려왔다.

지난해 정규리그 2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켰던 제주와 공격력을 강화한 전북, 국가 대표급 수비리안으로 견고한 방패를 구축한 울산, 2009년 AFC 챔피언스리그를 제패했던 포항도 6강 플레이오프 진출 후보들이다.

른쪽 풀백 김동진을 보강했다.

여기에서 성남에서 뛰었던 몰리나를 영입하는 한편 우승 주역인 제파로프를 완전히 이적시켜 공격수 데안, 수비수 아디와 함께 최강의 ‘웅령 4총사’를 보유했다.

서울의 지휘봉을 잡은 황보관 감독은 정규리그 2연패와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섰다.

윤성효 감독이 이끄는 수원은 거울급 이적생들을 앞세워 2008년 우승 이후 3년 만에 K리그 정상 탈환을 노린다.

수원은 지난해 차범근 전 감독이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낙마한 뒤 운성효 감독이 7위로 시즌을 마쳤고 FA컵을 제패하며 AFC 챔피언스리그 출전 티켓을 따내 체면 치레를 했다.

지난 시즌 후 대표팀의 주전 수문장인 정성룡을 거액의 몸값에 영입하며 ‘데알 삼성’ 재건을 위한 첫 단추를 끈 수원은 ‘조광래의 황태자’ 이용래와 대표팀에서 뛰었던 오세석, 오장은, 최성국 등을 데려왔다.

지난해 정규리그 2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켰던 제주와 공격력을 강화한 전북, 국가 대표급 수비리안으로 견고한 방패를 구축한 울산, 2009년 AFC 챔피언스리그를 제패했던 포항도 6강 플레이오프 진출 후보들이다.

제주는 중원사령관이었던 구자철이 독일 분데스리가 볼프스부르크에 진출한 공백이 커 보이지만 공격수 신영록과 강수일이 새롭게 합류했다. 지난해 최고 감독상을 받은 박경훈 감독의 지도력과 최우수선수(MVP)에 올랐던 김은중도 제주의 숨은 저력이다.

전북 역시 공격수 김동찬과 정성훈이 가세하면서 기존 이동국에 ‘외국인 트리오’에 넣요·로브레·루이스와 함께 공격의 파괴력이 배가됐다. 상무에 입대한 골키퍼 권순태를 대신해 전남에서 데려온 염동균이 골문을 지킨다.

전남 6강 티켓 노려

김호곤 감독이 취임 3년째를 맞는 울산과 황선홍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긴 포항도 변화를 줬다. 울산은 일본 J리그에서 복귀한 곽태희와 수원에서 영입한 강민수에게 ‘중앙수비수 드uo’ 임무를 맡겼다. 또 포항에서 뛰었던 공격수 설기현과 외국 생활을 접고 국내로 유턴한 베테랑 미드필더 이호와 송종국도 힘을 보탠다.

포항은 날카로운 원발 슈팅을 자랑하는 모파와 지난해 전남에서 뛰었던 슈바, 가나 출신의 공격수 아사모아가 대표팀 경력의 미드필더 김재성·신민과 함께 명가 재건의 선봉에 선다.

이와 함께 국가대표팀 사령탑인 조광래 감독의 뒤를 이어 최진한 감독이 지휘하는 경남과 정해성 감독 및 이운재의 가세로 무게감이 커진 전남, 2010 남아공 월드컵 당시



광주 FC 박기동



전남 드래곤즈 지동원

광주 등은 한 수 아래 전력으로 6강 진입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라운드 반란’을 일으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개인통산 535경기에 출전했던 ‘절인’ 골키퍼 김병기(경남)가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K리그 통산 99골을 기록 중인 이동국(전북)과 통산 97골을 사냥한 김은중(제주)이 첫 100골을 달성하는 것도 이번 시즌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신진공인중개사 (임대전문)

목포 옥암동 사우나2-3층 4층 빌딩매매

- ▶ 대지(중심상업) : 210평
- ▶ 건물(4층) : 470평(2007년상)
- ▶ 매매가격 : 23억원(대출 14억원 포함)

고흥군 금산면 토지 매매

- ▶ 계획관리지역 : 면적-14.000평, 8,500평 (10도 경사, 2차선 도로접)
-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 ▶ 대지 : 1500평(6차선 도로접) (700평)
- ▶ 자연녹지 : 700평 ▶ 일반공업지역 : 800평
-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립동 토지매매

- ▶ 대지 : ① 500평 ▶ 1200평
- ▶ 준주거지역(동립2지구 건너편)
- ▶ 건물 : ① 상가 30평, 창고80평
② 상가 200평 ▶ 공장200평
-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광산구 월전동 토지매매

- ▶ 대지 : 2000평(상산녹지지역)
- ▶ 6차선 도로변(공장·물류창고, 차고지 등)
- ▶ 매매가격 : 17억원 (건물 600평 포함)

문의: 016-644-4265, FAX: 523-8558

T. 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동구 금남로 5기 123-6, 유리온행 4거리 1층)

T. 010-4911-4989 FAX. 062-376-6611

금당 공인중개사

김정가 이하

- 광산구 신촌동 주거지2160평 공시지가 5억 매도3억8천
- 여수시 상업지역 대지205 건평52 종족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경매가는 20년선 매도10억3천
- 산2동 산업지 310m²(94) 공시가 3억7천 매도2억7천
- 동구 6차선 도로와 3차선도로로너 상업지 589평 건평600평 광시가 27억7천 매도 23억
- 북구청 부근 대지207 건평438 평(시가) 6932천 매도 897천
- 대인동 대지149 건평338 평(시가) 16923천 매도 897천
- 송정동 금호아이파크 587평 공시지가 255천 매도2억6천
- 북구 2피트단지 목욕탕, 물류연습장등 대지440 건평 507 평 시가 19억7천 전세2억5백 월세1630만원 13억
- 광주은행 원을 대지1080평 건평833 김정가 118천 매도 6억7천
- 학순동 남면 대마리 도로로 70평 4782평 공정합계 김정가 5억7천 대출 2억5천 매도 2억8천
- 학순동 4층 상가주점 평지 68 4층 145 평 매도 3억7천
- 충장동 5기 3층을 대지210평 1층은현복집, 금동동 6층 19억7천
- 송정동 3965평 공시가 1억 4천 신고는 2억 매도 7500
- 학순동 삼천리 주거지역 587평 공시가 3945000평 296천
- 금동5기 6평 대지112평 3026평 공시지가에 매도 4억 9천
- 주유도 회순을 광 1118평 공시지가 10억9천 매도 15억7천
- 광복동 털집을 광 272평 매도9억
- 매도 교환
- 두류동 4차선도로 105평 고회, 병원, 학원등 적합 7억2천
- 화정동 47평 6차선 도로변 중주거 48평 매도10억
- 학순동 6평면 사설별장 250평 경관좋은 1억7500
- 남평동 교원리 버스도로접 211평 주택과공장있음 1억6천백
- 산수동 호남반도1호 2층주거지 220평 1층빌딩 적합 매도2억5천
- 하남동 도천동 지면녹지 506평 공정면적 38천평
- 부인군 부안읍 이포트 부지 105평 11억

T. 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동구 금남로 5기 123-6, 유리온행 4거리 1층)

태영부동산 재테크컨설팅

호남경매신문지사,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 ▶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 (20년 경력)

근린시설

- 서구 광천동 토지305평 건평230평 2층건물 김정가 9억5천만 최저가 6억6천만
- 광산구 월계동 토지110평 건평375평 지하1층 지상6층 김정가 13억 최저가 6억9천만

농가시설

- 태평동 월아동 토지1060평 건물440평 최저가 1억3천만
- 니주시 세지면 토지707평 건물120평 김정가 1억9천 최저가 7천만

근린주택

- 북구 동립동 토지69평 건물120평 1층상가 2-3층 다가구주택 2층 4천만
- 담양군 대전면 토지380 평 건물150평 김정가 3억5천만 최저가 1억9천만

창고용지

- 김정가 3억5천만 최저가 1억9천만

농가주택

- 김정가 9천만 최저가 5천만

광주 서구 미륵동 도시철도공사 부근

김정가 1억6천만 최저가 8천5백만

▶ 이와 상당물건, 산토지 다수보유, 소액투자상당

광주 서구 미륵동 도시철도공사 부근

김정가 1억6천만 최저가 8천5백만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나광사광전남지사별 유지빌딩 501

승마장용도 광주근교 임야 5-10만평 구함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

- 광산구 신월동 보호방월로 9,722m²(9,241평) 3.3m²당 58

민원, 자연녹지지역, 분할기능.

• 서구 세하동 임야, 면적 3,835m²(1160평), 4m, 진입로, 매기 3.3m 당 65만원 자연녹지, 현재 임야.

• 서구 닉홀동 제2순환도로 부채도로로 접함, 담 1,886m² (570평), 3.3m 당 90만원 생산녹지.